

김관영 지사 무소속 출마하나?

전북경찰, 김 지사 집무실 압수수색
 제명 가져분 신청 법원 판단 '촉각'
 김 지사 제3지대 출마설 확산...
 민주당 경선 판세 변수로 부상



우석대 벚꽃길 '봄 절정' 지난 5일 완주군 삼례읍 소재 우석대학교 '봄 명물' 벚꽃길에서 외국인 가족과 재학생들이 활짝 핀 벚꽃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타임스>

전북경찰이 6일 오전 '청년 대리비 의혹' 논란이 제기된 김관영 도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 도청 김 지사의 집무실과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 모 음식점에서 청년 20여명과 식사를 한 뒤 대리비 명목의 돈을 준 혐의인데 당시 지역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경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김 지사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긴급 감찰을 지시한데 이어 지도부는 같은 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의 제명을 전격 결정했다.

김 지사는 "돈 봉투를 건넨 것은 자신의 불찰이지만 대리운전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즉각 회수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의

제명 처분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져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경선 일정 등 사안의 신속성을 감안해 7일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유력 주자였던 김관영 지사가 민주당 제명과 함께 이번 도지사 경선 참여도

못하게 되면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도지사 경선은 이원택, 안호영 국회의원의 2파전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본경선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지역 정가와 여의도 일대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의 무소속 출마 등 제3지

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조국혁신당도 유력 후보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 6월 전북도지사 본선거가 그 어느때보다 치열하고 타이트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장정철 기자

도교육청 '셀프 감사' 도마 도의회 "외부 감사 필요"

자체 감사 객관성·독립성 논란
 도의회 "심의 절차·자료 미흡"
 참여자 불명확...핵심 사실 공백



유정기 권한대행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밀라노 동계올림픽 국외출장과 관련, 감사관이 공무원외행심사위원으로 포함되고 심사요청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교육청이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청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전북도 감사위원회 차원의 감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사안과 관련, 지난 3월 24일부터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의원은 "교육감 권한대행의 올림픽 출장에 대한 감사를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며 "감사관실 최고책임자인 감사관이 공무원외행심사위원으로 포함되고 심사요청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동일 기관이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교육감 권한대행의 올림픽 출장에 대한 감사를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며 "감사관실 최고책임자인 감사관이 공무원외행심사위원으로 포함되고 심사요청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동일 기관이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교육청 제출자료에는 출장심의 또는 집행 과정에 참여한 인원의 감사 참여 여부에 대해 "관여한 감사 참여 인원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외행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절차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해당 위원들에 대한 회의 통보 여부 및 심사 요청 여부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교육청은 위원별로 개별적으로 심의의 안전 및 서면심사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답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수진 의원은 "지난 도정 질문 당시 교육청은 외부 위원 수가 적어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심사에 참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제출 자료에서도 실제 통보와 의견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외행심사위원회 심의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막식·경기·공연 관람 등 실제 참여자 관련 사실관계 역시 여전히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실제 사용자 확인 문제는 기존 지적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았고, 이번 자료 제출에서도 여전히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실제 참여자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관련 사실관계 전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실제 참여자 확인, 심의 절차,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등 핵심 사항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한수 조치가 이뤄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감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며, "교육청 자체감사만으로는 객관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전북도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전북도, '가정형 돌봄' 활성화 보호아동 위탁부모 모집

연령별 양육보조금 확대...부담 완화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물품 지원
 비혈연 위탁 확대...상시 모집·심사

전북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탁부모를 상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등으로 원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가정에서 보

호·양육하는 제도로,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가정형 보호서비스다.

현재 도내에는 1월 말 기준 659명의 아동이 518세대에서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다.

도는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보조금을 연령별 차등 지원 체계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7세 미만은 월 34만 원,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5만 원, 13세 이상은 월 56만 원을 지원한다.

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기

부금 2억 1천만 원을 활용해 2026년부터 3년간 위탁아동의 의료, 학용품 등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지역 위탁가정의 약 84%는 혈연관계에 의한 위탁가정으로 비혈연 위탁가정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북자치도는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예비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사를 거쳐 위탁부모로 선정하고 있다.

이미숙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따뜻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도, 1만3천가구 대상 사회조사 실시

29일까지 조사·삶의 질·인식 파악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0일부터 29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1만 3,515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2026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주관적 인식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도민 체감형 정책 설계의 핵심 기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면에서 계속>

군민과 **공감** 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

장수군의회
 JANGSU COUNTY COUNCIL

전북도, 고능력 한우 가축시장 거래 표시제 첫 도입

1++ 등급 출현율 53.8% 개량 '성과' 유전체 분석 상위 20% 한우 표시 품질 공개 합리적 가격 형성 유도

전북도는 유전체 분석으로 선발한 고능력 한우의 가치를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 입식축적 가축시장에서 '고능력 한우 가축시장 거래 표시제'를 시범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경매 과정에서 고능력 한우와 그 자식 소(후대축)를 전광판에 표시해 개체의 품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우수 한우 집단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유전체 분석 상위 20% 이내 한우를 '고능력 한우'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개량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2025년 출하된 고능력 한우 후대축의 1++ 등급 출현율은 53.8%로 전국 평균보다 12.3%포인트 높고, 마리당 약 102만 원의 추가 소득 효과가 확인됐다.

그간 이러한 우수성이 거래 단계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일반 한우와 유사한 가격에 거래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표시제를 통해 고능력 한우와 후대축을 명확히 구분하고, 품질에 따른 가격 형성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내 가축시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우 산



업을 양적 확대 중심에서 품질 중심 구조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민선시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고능력 한우 표시제는 과학적 개량의 성과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좋은 소를 키운 농가가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네거티브 중단, 정책으로 승부해야"

전북지사 선거 '흠집내기' 비판 "대통령과 함께할 리더 선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출마한 안호영 국회의원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는 전북이 국가 전략 속에서 중심지로 도약할지, 다시 주변으로 밀릴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로, 대통령과 함께 전북을 움직일 도지사를 뽑는 선거"라며 이같이 정책 중심 선거를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대전환을 기반으로 AI, 반도체 등 국가 성장산업을 지방으로 확장하겠다는 분명한 방향을 갖고 있다"며 "에너지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흐름을 전북의 기회로 연결할 수 있는 도지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지사 선거가 대통령 중심이 아니라 차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발판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전북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선거가 정치적 계산에 활용되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저는 그동안 정책으로 승부해왔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를 제기해 전국적 의제로 만들었고, 에너지 대전환과 AI, 교통망 혁신까지 전북의 미래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책 경쟁이 중심이 되어야 할 선거가 흠집 내기와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며 "전북의 선거는 정책으로 평가하고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관영 지사의 비상징계와 관련해 자신이 투서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네거티브 구원이 돌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뒤에 "근거 없는 네거티브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선 9기 전북도정은 김관영 도정의 성과와 함께 위에서 출발하는 만큼 정책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지만, 정책과 무관한 흠집 내기 공격은 전북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선거는 전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인지, 다른 정치의 출발점으로 소비되는 선택인지도 민들이 판단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김관영 도정과 함께 팀을 이뤄 전북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도민안전보험 확대 '생활 밀착' 보장 강화

도민 자동차·중복보상 전국 적용 운영질한·개물림 등 생활 항목 추가 최대 3천만원 보장 3년 내 청구 가능

전북도는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재산과 사고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3,335명이 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지급된 보험금은 약 22억 5천만

원에 달했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수혜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며 생활밀착형 안전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 주민등록이 된 모든 도민과 등록 외국인인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시·군이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형태로 추진되며, 폭발·화재·붕

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강력범죄 상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망 등 총 9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상금은 항목별로 최대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도는 올해 시·군별 지역 여건을 반영해 보장 항목을 일부 확대했다. 운영질한 진단비, 상해진단 위로금, 개물림 사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항목이 추가되면서 보장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

내 청구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시·군별 보장 항목과 한도는 해당 지자체 안전부서나 보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이원택 "운동·산업 함께 키운다" 전북 체육 고도화 공약

생활·엘리트·산업 3축 전략 제시 체육진흥기금 130억 확대 "1인 1스포츠"...생활체육 일상화



이원택 의원

견인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4개 시군과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특화 종목 발굴 및 연계 전지훈련 유치, 스포츠 관광, 대회 개최 등을 통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전지훈련 유치 2배 확대 및 체육형 프로그램 운영 △체육·관광·숙박을 연계한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SNS·디지털 기반 스포츠 마케팅 혁신 등이 포함됐다.

생활체육 정책은 '대회 중심'에서 '일상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00세 시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운동하고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1인 1스포츠'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체육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동호인 리그 도입 등을 마련한다.

또한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 종목 늘리고, 어르신·여성 체육활동 지원책 확대 등의 저변 확산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엘리트 체육 분야에서는 전국체전 중위권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전라중목 집중 육성 △우수 선수 유출 방지 △대학·실업팀 육성 강화 △스포츠과학 기반 훈련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도자 처우 개선과 훈련비·출

진비 현실화 등을 통해 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체전 순위를 끌어올리고 전북 체육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비롯해 국제대회 유치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외 체육 교류 확대 및 전북 특화 종목 세계화도 병행 추진한다.

이 의원은 "생활체육은 일상으로, 엘리트체육은 시스템으로, 스포츠는 산업으로 전환해 체육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체육 예산 확대를 통해 전북 체육을 고도화하고, 도민 삶의 질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1면에서 이어서>

조사 분야는 ▲주관적 웰빙 ▲건강(의료) ▲사회통합 ▲안전 ▲환경 ▲가구·가족 ▲지역 특성 등 7개 영역으로, 삶의 만족도와 의료 이용, 사회적 신뢰, 범죄 불안, 기후변화 인식, 가족 관계 등 도민 생활 전반을 폭넓게 다룬다.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사도 병행된다. 전주는 문화유산 인지도와 교통 이용, 익산은 청년 정주여건과 반려동물 양육, 김제는 인구 변화와 치매 인식, 부안은 교통복지와 생활인구 정책 등 지역별 현안을 중심으로 별도 항목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결혼·출산·보육, 기후변

화, 사회갈등 등 최근 사회 이슈를 반영해 조사 항목과 지표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역사회지표 공동항목과 조사주기를 일치시켜 시·도 간 비교가 가능한 통계 기반도 마련했다.

조사는 사전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 301명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통계 분석을 거쳐 12월 전북특별자치도 통계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철태 전북자치도 기획관은 "조사원 방문 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보행할때 꼭 지켜야할 교통안전 수칙

- 횡단보도 신호준수
-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 무단횡단 금지

작은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킵시다.

JBT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전주시 '중동 분쟁 피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

수출환경 악화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 4월 중 30억원 특별자금 긴급 지원

전주시가 '중동 분쟁 피해 중소기업'에 경영 안정 특별자금 긴급 지원한다. 이에 시는 중동 분쟁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동 분쟁 대

응 피해기업 특별용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금액은 총 30억원 규모이다. 대상은 전주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중동 분쟁으로 인한 수출·입 피해 및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이다. 시는 이 가운데 최근 2년간 수출 또는 원자재 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용자 한도는 최대 3억원 이내로,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에서 지원된다. 5000만원 이하 신청 업체는 신청 금액 전액이 지원된다. 대출은 전주지역 9개 은행(전북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 취급하고 최대 3.5% 이자보전율이 적용된다.

용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시 총 3년까지 가능하다.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stglassk10@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확인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보건소 폐렴구균·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접종 대상포진 취약계층 지원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인세대 건강한 노후 지원 위한 전주시보건소 '폐렴구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폐렴은 국내 노인 사망 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감염병이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6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평생 1회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접종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 대상포진 경우 극심한 통증을 동반

하는 질환으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시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또 80세 이상 일반 시민들도 본인 부담금 19,610원에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전주지역 지정의 료기관에서 진행된다.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

분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과 악성종양·면역결핍자, 중등도 이상 급성 질환자와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인 자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과거 대상포진 감염력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 후 6~12개월 이후에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소민 기자

IP 저변 확대 위한 보조강사 양성

전주 교육발전특구 사업, 중장년과 경력단절 여성 대상 지식재산 역량 강화·일자 기회 확대 지원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미래사회 인재 육성을 위해 중장년 및 경

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IP(지식재산) 기반 특허출원 교육과정' 보조강사 양성 교육을 시행한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은 아이디어와 기술, 콘텐츠 등 창작 결과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로, AI·가상융합·디지털 콘텐츠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는 창작물의 권리 보호와 사업화의 핵심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교육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평일 18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총 8일간(32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기업가정신 기초 △아이디어 발상 및 도출 방법론 △특허 청구항 작성 △온라인 전자출원 실습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구성됐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진흥원 누리집(www.jica.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싱가폴 테마섹 폴리테크닉 학생단 전주 방문

전주 ICT 첨단 기술 등 미래산업 확인

싱가포르 공립전문대학인 테마섹 폴리테크닉(이하 테마섹) 대학생 20여명이 지난 5일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전주를 방문했다.

싱가포르 대표 공립전문대학인 테마섹 대학은 실무 중심 교육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내에서 우수한 취업률을 자랑하는 대학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전주미래도시 포럼에 연사로 참여한 우탄키 테마섹 부

총장과 전주시의 우호적 관계를 계기로 추진됐다. 특히 테마섹 학생단은 전주의 첨단 기술 체험을 위해 지역 내 유관 시설들을 둘러보고, 전북대학교를 방문해 대학 간 교류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이번 테마섹 학생단의 방문 프로그램이 단순한 견학을 넘어 전주의 ICT·콘텐츠 산업 현황을 직접 경험하고,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디지털 심장혈관 촬영장치 <사진=전북대학교병원>

전북대병원 '도·시민 진료' 최첨단 경쟁력 구축

심혈관 촬영장치부터 MRI·CT·로봇수술기까지

전북대학교병원이 진료에서 오는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북대병원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완결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거점 역할에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있다.

앞서 전북대병원은 지난해부터 단계별 장비고도화 통한 정밀 의료체계 완성에 노력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고난도 수술 위한 단일공 로봇수술기 '다빈치 SP'와 '다빈치 Xi'를 동시 구축했다.

더불어 암 진단 정밀도를 높이는 PET-CT와 영상유도 방사선치료기(HALCYON)를 도입해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한 기반을 다진 바도 있다.

특히 병원은 올해 AI 기술이 집약된 최상위 MRI와 CT를 도입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심도자실에 최첨단 디지털 심장혈관 촬영장치를 성공적으로 도입

완료하며 심혈관 질환 시술 역량을 한층 높였다.

전북대병원 의료장비 확충은 △중증·응급 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정밀 의료 인프라

구축 △방사선 노출 최소화를 통한 환자 안전성 극대화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지역 내 완결형 진료 관리 체계 강화 △미래형 스마트 병원 환경 조성을 통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핵심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까지 신규 MRI, SPECT-CT, 성형외과 수술 현미경 등을 순차적으로 확충하며 진료 전 영역의 인프라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북대병원은 도시민 진료에 의한 "하이브리드 수술실과 로봇수술센터 구축, 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 등 진료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며 중증·응급 중심 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까지 신규 MRI, SPECT-CT, 성형외과 수술 현미경 등을 순차적으로 확충하며 진료 전 영역의 인프라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북대병원은 도시민 진료에 의한 "하이브리드 수술실과 로봇수술센터 구축, 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 등 진료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며 중증·응급 중심 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심도자실에 최첨단 디지털 심장혈관 촬영장치를 성공적으로 도입



전주완산소방서 '곤지중'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금상' 학생 주도 시나리오·무대 구성

전주완산소방서 대표로 참가한 곤지중학교 팀이 제15회 전북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지난 3일 대회를 통해 곤지중학교 학생들은 '꽃동산 나들이 중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주제로 실제 상황 무대를 구성하며 대회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곤지중학교 학생들은 심폐소생술 전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

았다. 특히 이날 학생들은 시나리오를 직접 기획하고 연출했다.

또 무대 소품까지 자체 제작하는 등 준비 과정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완성도를 높인 점이 돋보였다.

곤지중 팀은 평가단으로부터 심정지 환자 발견부터 "119 신고, 가슴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까지 일련의 응급처치 과정을 침착하게 표현하며 실제 현장 대응 능력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곤지중학교 학생들은 심폐소생술 전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

전북환경청 '중소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기술지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개소 배출시설 진단 및 관리방법 등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지원·컨설팅

전북지방환경청-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전북지역 소규모 환경오염물질 배

출사업장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기술지원 대상은 최근 3년 내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과 기초지자체를 통해 기술지원을 신청한 사업장, 사업장 자체 신청 등 환경관리가 취약해 기술지원이 필요한 중소 사업장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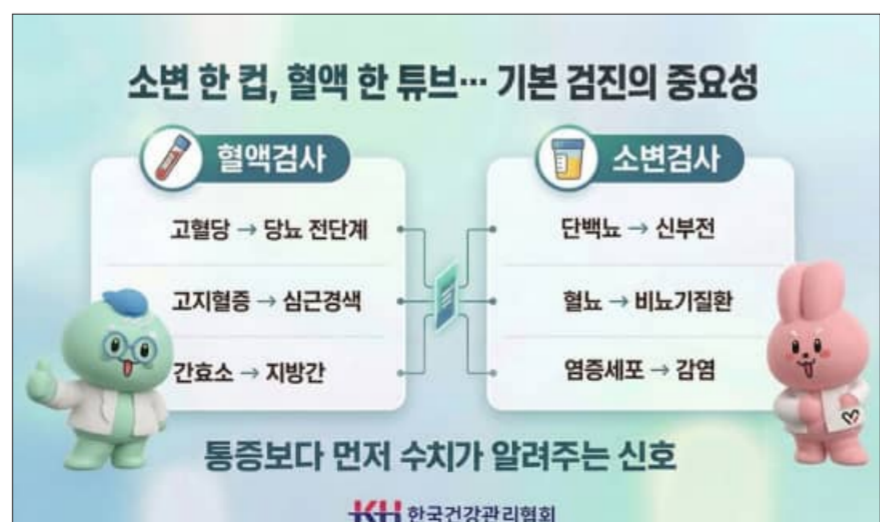
으로 선정했다. 지원은 전북환경청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구성된 공공기관, 환경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배출·방지시설 진단 및 관리방법, △노후시설 교체·개선방안, △환경규제정보 제공 등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

지원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맞춤형 기술지원은 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이어진다. 한편 환경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도 적극 발굴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 "소변·혈액 속에 '10년 건강' 담겼다"

2024년 건강검진 통계연보 수검자 69.8% 대사증후군 위험 1회 이상 기본 검사순환화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일반건강검진은 전체 검진 대상 약 2318만 명 중 약 1752만 명이 참여해 75.6%의 수검률을 기록했다. 검진 결과, 전체 수검 인원 중 질환의심 판정은 32.0%, 유질환으로 판정된 경우는 28.9%에 달했다. 특히 수검자의 69.8%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목별로는 높은 혈압 소견이



45.1%, 높은 혈당인 경우가 41.1%로 집계되어, 기초 검사 항목에서 이상 소견을 보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혈압 측정과 채혈, 소변검사라는 기본적인 과정만으로도 심뇌혈관질환, 당뇨, 신부전 등의 치명적 위험을 무중

단계에서 충분히 포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유지는과장은 "가장 기본이 되는 채혈과 소변검사만으로도 증상이 없는 상태의 심뇌혈관질환, 신장 기능 저하, 대사 및 비뇨기 질환을 폭넓게 선별할 수 있다"라며 "내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인 기초 수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향후 10년 건강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명적인 질병의 상당수는 특별한 통증 없이 혈액과 소변의 수치 변화로 시작된다"며 "연 1회 이상 기본 검사를 습관화해 무증상기부터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러 "치명적인 질병의 상당수는 특별한 통증 없이 혈액과 소변의 수치 변화로 시작된다"며 "연 1회 이상 기본 검사를 습관화해 무증상기부터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새마을회 탄소중립 '나무심기행사' 실천

꽃잔디 등 나무 1600주 식재

전주시새마을회는 제56주년 새마을의 날을 기념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확산 위한 '새마을의 날 기념 탄소중립 실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꽃잔디를 중심으로 한 경관형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공원 일대에 꽃잔디와 철쭉 등 나무 1600주를 식재하며, 계절마다 다채로운 색감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전주시새마을회 탄소중립 '나무심기행사'는 지난 3일 완산구 장성공원 일원에서 전주시새마을지도자 회원과 전주시대학새마을동아리, 전주시새마을청년연대 등 70여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의용소방대 신규대원' 모집

시민 참여 안전망 강화

주덕진소방서는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해 2026년 2분기 의용소방대 신규대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의용소방대 결원에 따른 인력 보충을 위해 추진된다.

모집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 진행된다.

기간은 지난 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2일간으로 총 3개 대에서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분야는 전주덕진남성소방대 8명, 여성소방대 1명, 심폐소생술 전문소방대 1명이며, 청장년층

(1977년생~2006년생)을 중심으로 우선 선발을 고려해 지역 내 활동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격은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사업장 등으로 상주하는 만 65세 미만 주민으로, 신체가 건강하고 합동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다. 또 소방 관련 자격이나 기술을 보유한 경우 우대되며, 특히 심폐소생술전문대는 관련 자격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

선발 절차는 공개모집(서류 제출), 서류심사, 대원 임명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임명은 5월 1일 예정되어 있다.

선발 절차는 공개모집(서류 제출), 서류심사, 대원 임명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임명은 5월 1일 예정되어 있다.

분야는 전주덕진남성소방대 8명, 여성소방대 1명, 심폐소생술 전문소방대 1명이며, 청장년층

전북TP '기술닥터 프로그램' 기업 모집

전문 기술닥터, 현장 중심 맞춤형 1:1 전문 컨설팅 제공

전북테크노파크가 '2026년 기술닥터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기술닥터 프로그램은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기술닥터)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 맞춤형 1:1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전북도내 제조 기반 중소기업이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도내 제조 기

반 중소기업 대상으로 총 25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술개발 △공정 개선 △품질 향상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수립 △수출 및 판로 개척 △경영전략 수립 등 경영 전문 컨설팅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분야에 따라 최대 160만원 이내로 제공되며 기업 부담금 없이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고기간은 6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이며 접수는 5월 4일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techdoctor@jbtp.or.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북테크노파크 '2026년 기술



<사진=전북테크노파크>
 닥터 프로그램'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력으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 위해 마련



정우창 여산농협 조합장 '새로운 조합장상' 수상

품목 다변화 공로 인정
 정우창 조합장은 "조합원과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준 결과 유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26년 3월에는 마늘 작목반 농작업대행 보조사업을 추진하며 농가 호응을 받았다. 또 '25년 콩 작목반을 신설하고 계약재배를 추진해 콩 콤바인 및 선별기 도입으로 수확과 선별을 일괄처리, 농민의 일손 절감에 기여했다. 이외 정 조합장은 농촌 왕진버스를 추진해 농업인에게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약계층대상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복지증진에도 힘쓴 인물이기도 하다. 정우창 조합장은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 수상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정우창 조합장은 "조합원과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준 결과 유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26년 3월에는 마늘 작목반 농작업대행 보조사업을 추진하며 농가 호응을 받았다. 또 '25년 콩 작목반을 신설하고 계약재배를 추진해 콩 콤바인 및 선별

전북도-경진원, 중소기업 판로 개척

'투트랙' 맞춤형 지원 오는 17일까지 신청

전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 강화와 내수 시장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2026년 국내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박람회 지원사업은 기업들의 성장 단계와 역력에 맞춘 '투트랙(Two-track)' 맞춤형 지원 방식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지원'과, 품질과 기술력이 이미 검증된 도내 79개 우수상품 지정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상품 전용 지원'으로 나눠 동시 모집을 진행한다. 지원 내용과 조건은 두 사업 모두 동일하다.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에서 개최되는 총규모 150부스 이상의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에게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의 최대 70%(부가세 제외)를 지원하며, 한도는 기업당 최대 200만원이다. 지원 규모는 일반기업 22개사 내외, 우수상품 지정기업 15개사 내외로 총

37개사 규모다. 전북경진원은 타겟 기업이 다른 만큼 평가 방식도 차별화했다. '일반 지원'은 업력, 근로자 수, 매출규모, 인증 및 특허 등 기업의 전반적인 성장 기초 체력을 종합 평가한다. 반면 '우수상품 전용 지원'은 이미 검증된 제품력을 바탕으로 박람회 현장에서 바이어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마케팅 역량과 지식재산권(상표, 디자인) 등 실질적인 세일즈 무기 보유 여부를 집중적으로 평가해 실적 창출이 기대되는 옥석을 가릴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6일부터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

지원시스템(JBOK)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단, 더 많은 도내 기업에게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두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될 경우, 기업은 하나의 사업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다양한 바이어를 만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JBOK.kr)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K-곤충산업 미래 비전 공유회' 개최

세계 특수의료용도식품 소재화 사업 착수 본격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오늘 국립농업과학원 분원에서 '그린바이오 산업과 연구개발(R&D)이 함께 만드는 케이(K)-곤충산업 미래 비전 공유회'를 연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도 농업기술원을 비롯해 연구소, 대학, 기업체 등 과제 책임자 60여 명이 참석해 향후 곤충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 아울러 올해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4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농촌진흥청의 '곤충단백질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 푸드) 소재화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도 알린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산·학·연·관과 협력해 산업 현장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케이-곤충단백질의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 푸드) 소재화와 수출 산업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먼저 핵심 정책과 연구 사업을 소개하고, 제4차 곤충·양잠산업육성 종합계획과 곤충단백질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 푸드) 소재화 사업을 설명한다. 각 과제 책임자는 5대 핵심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눈다. 5대 핵심 과제는 곤충 기능성 단백질 발굴 및 바이오 소재 실용화(원료 발굴)·식품공정 기반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 푸드) 개발 및 수출 상품화(메디 푸드화)·인공지능 기반 곤충자원 맞춤형 생산 및 산업화 기술 개발(스마트 생산) 차세대 단백질 품종 증진 및 알레르겐 관리 기술 개발(품질 고도화) 세계 신규 단백질 소재 수출 인증 및 표준화 지원(수출 지원)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김남정 부장은 "“곤충단백질 특수의료용도식품 소재화 사업'은 곤충산업이 첨단 바이오 소재, 특수의료용도식품 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진=농진청>
 디 푸드) 시장 역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곤충산업 시장은 확대 추세에 있지만, 표준원료 확보, 대량생산 체계, 품질관리 기반이 부족하고, 식품 적용성 한계와 국가별 규제가 달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소민 기자

바이오진흥원 "JIF-ESG종합보고서" 발간

성과 공유 및 추진방향 제시
 주요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ESG 실천다짐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바이오진흥원은 ESG를 단순한 보고서나 관리 지표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기관 경영 전반에 내재화된 지속가능 성장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사회 분야에서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상생협력 강화,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윤리경영과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 확립 등을 중심으로 관련 과제를 지속 추진해 왔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JIF-ESG 종합보고서는 우리 기관이 ESG를 기반으로 창출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담아낸 자료"라며 "앞으로도 ESG를 경영 전반에 내재화해 지역산업 혁신과 지역 사회 상생을 함께 이끄는 지속가능한 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해 ESG 추진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농생명·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ESG 지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기관 주요 사업과 연계한 실행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국립종자원, 벼 파종기 앞두고 농가 주의 당부

충분히 싹 틔운 후 파종해야
 트는 비율(최아율)이 80%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돼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파종 전 벼씨의 싹트는 상태를 확인해 최아율 80% 이상 확보 후 파종해야 한다. 발아가 더딘 종자는 최아 기간을 1~2일 추가 연장해 충분히 싹을 틔운 후 파종해야 한다. 자가채종 종자는 소급물 거르기 등을 통해 충실한 종자만 선별하고, 종자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파종 시기 저온이 예상되는 경우 무리한 조기 파종을 지양하고 적정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아 지연 품종은 알찬미, 해들, 동진찰, 해담쌀, 새청무, 영호진미, 고시하거리, 수찬미, 추청 등이다. 이번 발아 지연은 지난해 등숙기 고온과 잦은 강우로 인해 종자의 충실도가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일부 종자의 경우 침종 3일 경과 후에도 싹

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신청포털' 개편

'바로처리센터'에서 '지적측량신청포털'로 변경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수)가 일반 국민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쉽게 지적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 신청 포털을 개편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지적측량신청포털'로 개편하면서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이로써 지적측량을 원하는 국민이 어디서나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

용을 절약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운영되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지 적용어를 사용하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된 '지적측량신청포털'에서는 지적측량 전문용어를 몰라도 측량할 토지의 주소를 검색하고, 측량목적만 입력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지적측량 신청을 할 수 있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오지에 거주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익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인 고객을 직접 방문하는 등 지적측량 신청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수 사장은 "이번 지적측량신청포털 개편은 국민이 불편하게 시·군·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드려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지적측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 신청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추후 지적측량신청포털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반영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을 추가 개선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 정보교사 절반이 '순회교사'

1명이 9개 학교 돌기도 "지역 간 AI 교육 격차 및 공정성 훼손 우려"

전북 지역 학교 현장의 AI·정보 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도내 정보교사 절반가량이 여러 학교를 옮겨 다니며 수업하는 '순회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교사 1명이 무려 9개 학교를 감당하는 사례도 확인돼, 지역 간 디지털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정보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중·고교 정보교사 배치율은 75.3%였으며 중학교의 경우 57.4%에 그쳤다. 이 가운데 전북 지역의 중학교 정보교사 배치율은 34.1%, 일반고는 52.5%에 불과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은 순회교사 양산으로 직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정보교사 5명 중 1명이 순회교사인 가운데, 전북과 전남은 그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교사 1인이 맡게는 5개교에서 최대 9개교까지 담당하며 교사와 학생 모두의 학습 환경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실제 전북 지역에서는 6개 학교를 전전하는 교사가 10명에 달했고 9개 학교를 전담하는 교사도 1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 편차에 따른 교육 격차도 뚜렷하다. 경기도의 정보교사 배치율은 114%로 기준을 상회한 반면, 강원과 전남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동일한 교육과정 아래에서도 지역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디지털·AI 교육의 질과 기회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AI 교육은 단순히 교과를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원 수급과 교육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돼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라며 "현재와 같은 인력 구조에서는 안정적이고 심화된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에 따라 AI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것은 교육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기자

'익산 보석배 전국육상경기대회' 개최

오는 8~11일 1천여 명 참가

스포츠 도시 익산에서 대한민국 육상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국 육상 꿈나무와 대학 선수들이 열띤 경쟁을 펼친다.

익산시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익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익산 보석배 2026 전국육상경기대회'가 열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육상연맹이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다. 초등부부터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까지 전국 1,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룬다.

특히 지역 학생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된다.

육상부를 운영하는 △이리초 △모현초 △팔봉초 △지원중 △이리동중 △어양중 △이리공고 △원광대학교 소속 선수들이 출전해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경기장 시설을 점검하고, 대회 기간 중 선수단과 관객객 편의를 위해 숙박·음식점 안내, 안전 관리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전국 육상 꿈나무들이 익산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쳐 대한민국 육상의 미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참가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현대 유스 '이베르컵' 아시아 최초 우승 쾌거

전북현대모터스FC의 유스 시스템이 유럽의 심장부에서 아시아 축구의 새 역사를 썼다.

전북현대 U16 연합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한국시간 6일 새벽), 포르투갈 카스카이스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유소년 대회 '이베르컵(IberCup) 카스카이스 2026' 엘리트(Elite) 부문 결승전에서 독일의 명문 SV 베르더 브레멘을 2-1로 꺾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전북현대 유스는 전반 5분 만에 선제 실점을 허용하며 위기를 맞았으나, 전북 특유의 '탁공' 정신으로 응수했다.

전반 16분, 신승환(36번)이 저돌적인 돌파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성공시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후반 21분 신승환의 자로 켄 듯한 패스를 받은 최

준혁(23번)이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리며 2-1 대역전극을 완성했다.

전북현대 유스는 고교 무대 적응기인 전북현대U18전주영생고 1학년 12명과 진학을 앞둔 전북현대U15동대부속금산중(교장 임완진, 이하 전북현대U15) 3학년 6명을 혼합 구성해 총 18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이번 참가에는 지도자 4명을 포함해 총 24명이 함께했으며 전북현대 '글로벌 유스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짧은 일정 동안 7경기를 소화하는 강행군과 부상자 발생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전북 유스는 견고한 조직력과 기술로 유럽 유망주들을 압도했다.

조별리그에서는 독일 베르더 브레멘을 상대로 4-2 승리를 거두는 등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어 캐나다 벌링턴 SC와의 준결승에서 최준혁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두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장정철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젊은판소리 다섯바탕' 소리꾼 모집

25주년을 맞는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철, 이하 소리축제)가 2026년 '젊은판소리 다섯바탕' 무대에 설 차세대 소리꾼을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난해까지 '청춘예찬 젊은판소리' 명칭으로 운영됐지만 올해부터는 공연의 의미와 취지를 더욱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젊은판소리 다섯바탕'으로 바뀌어 새롭게 선보인다.

'젊은판소리 다섯바탕'은 우리 소리의 미래를 이끌 젊은 소리꾼들에게 무대의

문을 열어주고, 전통 위에 새로운 울림을 더하는 소리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다. 판소리 다섯바탕의 각 바탕별로 한 명씩, 총 5인을 선발하며 이들은 각 바탕별 깊이 있는 완창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접수는 20일 오후 3시까지이며, 참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5분 이상 30분 이내의 소리 녹음 음원 파일을 이메일(soriprogram5@sofestival.com)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소리축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정철 기자

부안군, 문화예술교육 '가가호호' 공모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가호호(家加好好)' 운영기관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부안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기반 가족 공동체 문화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명인 '가가호호'는 '가족이 함께 할 때 더 큰 즐거움과 웃음이 만들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느슨해지기 쉬운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예술놀이 부모살롱 △할미할미 동시학교 △이웃가족 초록집밥 △춤추는 바디랭귀지 △초록은 아직 살아 있다 △잘 자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 등 총 6개의 커리큘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각·문학·신체·심리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결합해 서로 다른 삶의 조건 속에서 관계를 다시 잇는 경험을 제공한다.

재단 관계자는 "가가호호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과정"이라며, "문화예술을 통해 일상 속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완주군, 도서관주간 맞아 '책 읽는 즐거움' 가득

완주군립 도서관 5개관(중앙, 둔산영어, 고산, 풍취평귀, 삼례)이 도서관 주간(12~18일)과 도서관의 날(4월 12일)을 기념해 작가 초청 강연과 공연, 체험 등 군민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풍성한 독서 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중앙도서관은 오는 18일 10시 서은혜 작가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며, 세계 수상작 전시와 야외 합동 예술 활동인 '모두의 아틀리에'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둔산영어도서관은 11일 오전 10시 인공지능(AI) 시대 영어 공부법 특강을 시작으로 18일 오전 10시에는 재외동포 이야기를 다룬 전주 작가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고산도서관 역시 18일 오후 1시 30분

이시선 작가 초청 특강과 함께 가정에서 체스를 직접 시도 키워보는 체험 활동을 마련했다.

풍취평귀도서관은 15일 오전 10시 생생형 인공지능(AI) 응용프로그램(앱) 그록(Grok)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18일 오후 4시에는 스토리텔링 마술 공연과 목공예 체험을 이어간다. 삼례도서관은 13일 오전 10시 챗지피티 활용 교육과 더불어 인형 만들기, 그림책 낭독 배우 활동 등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이관우 도서관사업소장은 "도서관 주간을 맞아 군민들이 도서관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책과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2026 예술로 지역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대표이사 이경운)이 '2026 예술로 지역사업(예술로 이음)'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술로 지역사업(예술로이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최하며, 재단이 운영기관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업·기관-예술인 간 확장된 파트너십 기반의 협업을 통한 예술인 직업 안정화 및 예술적·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재단은 총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도내 기업 및 기관 9개소를 선정해 향후 선정되는 리더·참여예술인과 함께 △사회공헌 및 사회문제 해결 △기업·기관 조직문화 해결 △지역 환경·생태 문제 해결 △공공·전시기획(실행)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기업·기관 공모 지원 자격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 및 예술협업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가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선정된 기업·기관은 재단이 매칭한 예술인(리더예술인 1명, 참여예술인 4명)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며, 예술인의 활동비는 재단이 지원한다.

신청서 양식 및 공모 내용은 재단 공식 누리집(jb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jbct2024@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예술로 지역사업은 예술인의 창의력이 기업의 지원과 만나 긍정적인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혁신적인 사업이다"라며, "예술이 단순히 감상의 대상을 넘어, 기업의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열쇠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군산어린이공연장, 오는 18일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공연

군산어린이공연장이 오는 18일, EBS 인기 방영작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를 원작으로 한 클래식 공연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특별 기획으로, 클래식 음악과 흥미진진한 사파리 이야기가 어우러져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무대는 사파리 탐험을 떠난 캐릭터들이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며 펼쳐지는 이야기로 구성된다. 특히 관객 참여형 요소를 더해 어린이들이 공연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공연 종료 후에는 실제 악기를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클래식공연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는 4월 18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총 2회 공연으로 진행된다.

사전 예약은 8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를 통해 가능하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고향사랑 지정기부 '황등면 뿌리찾기 프로젝트' 시동

익산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보존에 나선다.

익산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으로 '황등면 뿌리찾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록이 곧 역사입니다'를 주제로, 호남의 유래이자 한국 화강암의 본고장인 황등면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기획됐다. 모금은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목표액은 5,000만 원이다. 모금된 기부금은 △황등면지 편찬 △황등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생찰사 사진 아카이브 구축 및 전시 등 황등면의 고유한 자산을 보존하고 재조명하는 데 사용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황등의 역사와 생활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향후 지역발전 정책과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익산시가 아닌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고향사랑e음'이나 민간플랫폼 '위기티브' 통한 지정기부 또는 전국 NH농협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어르신 마음 케어 '우울NO 행복IN' 연중 운영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관내 어르신들의 우울증 예방과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 경도양 등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우울 노(NO) 행복 인(IN)'을 연중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정읍시 노인 유관 기관과 각 마을회관(경로당)을 보건 인력이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중 우울감이 높거나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속하는 이들을 찾아내어 집중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울 노(NO) 행복 인(IN)'은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총 8회기에 걸친 체계적인 과정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노인 자살 예방 교육, 우울·스트레스·불면 등 정신건강 유형별 전문 교육 등 오감을 자극하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돼 어르신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한층 높였다.

손희경 시 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이 우울한 마음은 멀리하고 행복은 더 가까이 느끼실 수 있도록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진 기자

익산·정읍, 시민 경제 지원 나서 2(題)

익산-산림조합, 전입 청년 우대저축 확대

익산시가 금융 혜택과 교육을 결합한 지원으로 전입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지역 정착을 돕는다.

익산시는 익산산림조합과 협력해 '다시, 익산! 웰컴 익산' 청년 우대저축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입 청년을 위한 우대금리 지원 사업으로, 시와 익산산림조합 간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금리 혜택을 대폭 상향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올해 상품은 시중 금융상품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정기예금은 기본금리 3.0%에 우대금리 1.0%를 더해 연 4.0%를 적용하며, 정기적금은 기본금리 3.8%에 우대금리 1.5%를 더한 연 5.3%(월 최대 100만 원)다.

지원 대상은 198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로,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익산으로 전입한 청년이다. 가입부터 만기까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선택순 200명 한정으로 운영된다. 가입은 익산산림조합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금융뿐만 아니라 취·창업, 주거 등 전방위적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진화적 생태계 조성을 통해 정부의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인구 감소 시대에 청년들이 익산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우대저축 상품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강화

정읍시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보육료 외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통 보육료 외에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이다.

여기에는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 운행비, 입학 준비금, 행사비, 현장 학습비 등이 포함된다.

시는 보육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령별 수납 한도액에 맞춰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 학부모들의 경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있다.

올해 연령별 상제 지원 내역에 살펴보면, 우선 0~1세 영아에게는 월 2만원의 시비를 지원하며, 2세 영아의 경우 도비와 시비로 월 5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누리과정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세 유아에게는 월 14만 2000원, 4~5세 유아에게는 월 18만 1000원을 각각 지원해 부모들의 보육료 외 추가 경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부모들이 개별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필요경비 항목들을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진 기자

'익산 국가유산 야행' 사전 접수 시작

21일까지 신청 가능

익산시가 6일부터 '2026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 프로그램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야행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달빛 아래 깨어나는 백제왕궁의 밤'을 주제로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백제왕궁(왕궁리유적) 전역을 무대로 공연, 체험, 전시가 어우러진 '8야(夜)' 테마를 선보이며, 급마 지역 상권과 연계해 '머무는 야행'으로 외연을 확장했다.

익산 야행은 국가유산청 '3년 연속 최우수 야행' 선정과 '피너클 어워드' 3년 연속 수상 등 독보적인 완성도를 인정받아 왔다.

시는 축제를 더욱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핵심 프로그램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사전 접수를 진행한다. 사전접수가 가능한 프로그램은 △백제왕궁 달빛기원 △익산백제 보물찾기(세계유산센터) △익산백제 골든벨(세계유산센터) △야(夜)심 한밤여행 등이다.

시는 방문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행사장 내 주차장을 없애는 대신 미륵사지, 팔봉공설운동장 등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시내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직통 셔틀버스'를 운행해 혼잡을 최소화한다.

시 관계자는 "달빛 아래 펼쳐지는 백제왕궁의 밤이 일상의 속도를 잠시 내려놓는 쉼표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비한 이번 야행에서 익산만의 아름다운 밤밤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익산시>

동장 등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시내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직통 셔틀버스'를 운행해 혼잡을 최소화한다.

시 관계자는 "달빛 아래 펼쳐지는 백제왕궁의 밤이 일상의 속도를 잠시 내려놓는 쉼표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비한 이번 야행에서 익산만의 아름다운 밤밤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주택용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최대 258만 원까지

군산시가 2026년 주택용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보급 확대를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 소유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대장상 군산시에 소재한 기존 또는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이다.

단독주택에 3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설치비 약 454만 원 중 국비 165만 원, 지방비 93만 원이 지원되며, 자부담은 약 196만 원 수준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일반 주택에 3kW 태양광 발전설을 설치하면 월 평균 300~350k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월 6만 원 이상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정의 경우 약 4~5만 원 내외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으며, 설치 후 약 3~4년 내 초기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공단이 선정한 시공업체와 에너지 지원, 설치 규모 및 위치 등을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국비 지원금액, 참여 시공업체 등 세부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산시 신재생에너지과 에너지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본격화

출퇴근 버스 확대·전국 최초 퇴직연금 지원 등

군산시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출 기업 '안전망' 강화 및 해외 판로 확대

먼저, 시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에 대비해 2025년 실적에 있는 관내 183개 수출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수출보혐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대금 미지급이나 환율 변동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한다.

또한 KOTRA와 손잡고 △수출 마케팅 △해외 박람회 참가 △해외 지사화

사업을 통한 운영에 중동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산단 근로자 '출퇴근·주거' 걱정 덜어준다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복지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출퇴근 셔틀버스 노선을 기존 6개에서 7개로 확대 운영한다.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은 기업당 기존 3실에서 최대 5실로 늘렸다.

특히 올해는 신청 수요가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92실→125실)함에 따라 4월 중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하고 신속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 최초'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및 이차 부담 완화

특히 군산시는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 지난 17일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30인 이하 기업(소상공인 포함) 중 월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단 지원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노후 소득 보장과 임금 체불 예방에 앞장선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차 보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향토기업에 대한 우대 금리를 3.5%로 상향해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은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하고, 근로자는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모반인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태양광 설비 구축을 통해 물류센터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태양광 구축

전북도 주관 공모 선정 가격 경쟁력 강화 기대

익산시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시설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6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사업' 선정으로 도비 5억 3,000만 원을 확보해 추진된다.

시는 태양광 설비 설치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은 5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며, 6월부터 태양광 발전 전력을 본격 활용할 예정이다. 익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물류시설로, 중소기업들이 공동 구매를 통해 유통 단가를 낮추고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를 통해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에 대응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돕고 있다. 시는 태양광 설비 도입으로 절감된 전력비는 운영비 절감으로 이어져 상품 가격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태양광 설비 구축을 통해 물류센터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감소하거나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에는 변경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자격 변동이 있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면 읍면동 사례관리, 긴급복지, 민간지원 연계 등을 통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반면 고의 또는 허위신고에 따른 부정수급이 확인될 때는 보장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4,725가구 대상 소득·재산 변동 점검

군산시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한정된 복지 재원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가운데 소득·재산 변동이 예상되는 4,725가구가 해당되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조사 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확보한 공적자료 68종을 활용할 수급 자격과 급여를 재판정하게 된다.

군산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감소하거나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에는 변경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자격 변동이 있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면 읍면동 사례관리, 긴급복지, 민간지원 연계 등을 통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반면 고의 또는 허위신고에 따른 부정수급이 확인될 때는 보장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NH농협 군산시지부, 새만금 마라톤대회 총력지원

NH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지부장 김범석)는 지난 5일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에 NH농협은행 군산시지부 임직원과 가족, 육구농협(조합장 전봉구) 및 회원농협(조합장 김기동) 임직원, 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들틴 등 100여명이 참여해 행사 진행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이날 홍보부스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 홍보와 온라인 기부추진, 군산 관내 지역농협 담당품 전시·홍보, 육구농협에서 생산하는 프리미엄 군산 쌀 심리향 500g짜리 1000여개를 증정하면서 군산 쌀 소비 촉진 및 농심친선 운동을 함께 진행했다.

또한 먹거리 부스에서는 대회 참가자 및 내방객들에게 육구농협 '심리향' 쌀로 만든 떡볶이 및 회원농협 '육도진미' 쌀로 만든 가래떡 시식 행사와 군산시 농축산물로 만든 돼지고기 수육, 김치 등을 나눠주어 큰 호응을 얻었다.

김범석 지부장은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군산 관내 농축산물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 전국민 참여 및 쌀 소비촉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농가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범석 지부장은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군산 관내 농축산물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 전국민 참여 및 쌀 소비촉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농가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부안군, 지역화폐 10억 원 추가 발행

중동 불안 대응 4월 한시적 증액... 민생경제 안정 총력

부안군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비상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부안사랑상품권 10억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발행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군은 4월 한시적으로 상품

권 발행 규모를 기존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억 원 늘려 운영한다. 또 1인당 월 충전 한도는 기존 70만 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특정 인원이나 업종에 혜택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구매자 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판매 다 양한 소상공인들이 고르게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가발행은 오는 8일부터 운영 된다. 충전 한도는 50만원으로 조정되지만 12%의 높은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

된다. 따라서 군민이 50만원을 충전할 경우 1인당 최대 6만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한도 하향 조정에 따라 오는 8 일 이전에 이미 50만원 이상을 충전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이번 10억원 추가 발행을 결정했다”며 “발행 규모는 키우고 구매 한도는 조정해 더 많은 군민이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고 민생 경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김제시 기업체, 다자녀가정 후원 지속

기업 28개사, 34가구 후원

김제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다자녀가정' 기업·단체 행복드림 매칭사업에 참여한 후원업체 대표 및 관계자들을 초청해 감사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공모를 통해 모집된 참여 업체(28개소)와 자녀수 및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다자녀가정(34가구) 간 1:1 매칭을 마쳤으며, 참여업체는 향후 1년간 월 10만원씩, 연간 총 120만원을 후원해 다자녀가정의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이날 전달식에서 나눔을 실천한 후원업체 대표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증서를 전달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해마다 잊지 않고 따뜻한 정을 보내주며 올해도 함께한 업체는 △(21년부터 후원 4개소) 농협회사법인(주)농산 △(유)금란산업개발 △(주)농협목우촌 김제육가공공장 △(주)참고을 △(23년부터 후원) 제이앤에스엔지니어링(주) △(24년부터 후원 6개소) 제이비씨엔에스(주) △(유)정정산업 △다복술식품 △에스엠산업 △(주)에이엠특장 김제공장 △(주)진우에스엠 씨 김제지점 △(25년부터 후원 10개소) 농협회사법인(유)모양산업 △(주)삼정디씨피 △(주)코팅코리아 △(유)금성상공 △(유)미래교육연수원 △반석피에이(주) △(주)다운트리 △(주)마루이앤씨 △(주)아리올라이팅 △(유)조원건설 총 21개소가 있으며, 이들은 꾸준한 사회공헌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올해 신규로 참여한 업체는 △(유)건아 △(유)금란건축사사무소 이앤지 △(유)우리포장건설 △(유)한스 △(주)메이저스마트건설 △(주)신흥 콘크리트 △(주)정림 총 7개소가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따뜻한 연대가 아이키우는 가구에 힘이 되고 우리시의 인구구조 위기를 극복하는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23년부터 후원) 제이앤에스엔지니어링(주) △(24년부터 후원 6개소) 제이비씨엔에스(주) △(유)정정산업 △다복술식품 △에스엠산업 △(주)에이엠특장 김제공장 △(주)진우에스엠 씨 김제지점 △(25년부터 후원 10개소) 농협회사법인(유)모양산업 △(주)삼정디씨피 △(주)코팅코리아 △(유)금성상공 △(유)미래교육연수원 △반석피에이(주) △(주)다운트리 △(주)마루이앤씨 △(주)아리올라이팅 △(유)조원건설 총 21개소가 있으며, 이들은 꾸준한 사회공헌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올해 신규로 참여한 업체는 △(유)건아 △(유)금란건축사사무소 이앤지 △(유)우리포장건설 △(유)한스 △(주)메이저스마트건설 △(주)신흥 콘크리트 △(주)정림 총 7개소가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따뜻한 연대가 아이키우는 가구에 힘이 되고 우리시의 인구구조 위기를 극복하는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17일까지 장애인 평생 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부안군은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6년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의 학습 참여를 지원하고 역량 개발과 사회 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진된다.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총 18명을 선정한다. 선정자에게는 1인당 연간 35만원의 교육비가 지원되며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간편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어 참여 접근성을 높였다. 대상자는 자격 확인 후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고령자 순으로 우선 고려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5월 중 개별 안내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보훈팀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부안=은봉기 기자

“책 읽는 고창, 올해의 책” 4권 최종 선정

군민 독서 참여 확대

고창군 도서관은 군민과 함께 읽고 공감할 올해의 책 4권을 최종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26 책 읽는 고창, 올해의 책'은 고창 황윤석도서관 개관에 따라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고창군을 대표하는 올해의 책을 선정해 함께 읽고 소통하기 위한 독서문화 캠페인의 일환이다. 고창군은 4개 분야(일반문학 6, 비문학 5, 청소년 5, 어린이 5) 총 21권의 도서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온·오프라인 군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고창군민 2,424명이 투표

표에 참여한 가운데 부문별 최다 득표 도서를 올해의 책으로 확정했다. 선정 도서는 일반문학 분야 △제철 행복(김신지) 비문학 분야 △청춘의 독서(유시민) 청소년 분야 △눈지의 렌(최상희) 어린이 분야 △긴긴밤(투리) 총 4권이다. 고창군은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도서관 주간에 '2026 책 읽는 고창,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개최하고, 올해의 책 작가 초청 강연, 독서 릴레이, 한 줄 감상평 쓰기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군민의 독서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제729회 지평선아카데미, 나경군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초청 강연

김제시는 오는 9일 제729회 지평선아카데미에 나경군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을 초청해 “미래 1,000년을 준비하는 새만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나경군 사장은 김제 출신인 출신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원광대학교 학부 총학생회장 시절,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해 7개월간 옥고를 치른 민주유공자다.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전북대학교 특임교수 등 학계 활동과 법무법인 해운 고문 및 Jeolla 뉴벨바그 영화제 이사장 등 사회 활동을 해온 나경군 사장은, 전북 지역에서 오랫동안 다양하게 활동한 경험과 새만금에 대한 깊은 이해, 지역정치권과의 원활한 소통 등을 인정받아 지난 2024년 3월 제3대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고향에서 강연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는 나경군 사장은 이번 지평선아카데미를 통해 새만금의 과거와 현재를 소개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의 역할과 향후 그려질 새만금의 미래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사진=부안군>

부안군, 서신서외지구 노후주택 전수조사

부안군은 부안읍 서신서외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주환경 개선과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노후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특히 △도로확장으로 인해 담장 및 대문 이설이 필요한 주택 △거점시설 및 공원 주변의 경관 개선이 시급한 주택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주택

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마을 전체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신규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서신서외지구 집수리 지원사업은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 추진에 적극 협조하거나 사업 대상지에 직접 맞닿아 있어 정비 파급효과가 큰 주택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공정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부안=은봉기 기자

고창군 '6·25 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 열어

고창군이 지난 5일 공음면 산산마을 위령탑에서 제76주기 6·25 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열었다. 특히 올해는 태기준 고창경찰서장이 함께 참석해 희생자 추모의 뜻을 더했다. 이번 위령제는 오랜 세월 말하지 못했던 아픔을 되새기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며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제례를 시작으로 헌화과 분향, 추념 및 추도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

했으며, 참석자들은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희생된 이들의 삶을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삶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선정

2년 연속 쾌거 동고동락 프로젝트 추진

김제시가 교육부 주관 '2026년 지역 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인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사업'에 2년 연속 공모 선정되며, 전북 대표 평생 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사업은 고령화·인구소멸로 인한 지역의 열악한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누구나 배움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광역) - 평생학습도시 - 지역대학 및 기업을 연계하여 광역 차원의 평생학습

자원 연계·협력을 도모하는 컨소시엄 형태 국가 평생교육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집중진흥지구사업은 “동고동락(同高同樂) 학습프로젝트”의 사업테마를 가지고 지난해 구축한 ‘전북형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의 성과와 기반을 바탕으로 컨소시엄 참여 도시·대학·기업 간 교류의 확장, 디지털 교육과정의 고도화, 협력형 공동사업 추진으로 참여 주체 모두가 함께 인적·물적 학습자원의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평생학습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선정을 통해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억8천8백만원이 확보돼 김제시를 포함한 전주·익산·순창 4개 도시와, 전주대, 호원대, ㈜KTCS 등 지역·대학·기업이 협력기관으로 참

여하여 50+인생학교, 로컬배움터 사업 등 5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도시 특성과 학습수요에 맞게 교류형 사업을 구상하고 도시 간·대학 간·기업 간 정례적 교류 구조를 강화한 MOU 체결 및 정기 교류협의체 운영을 통해 컨소시엄 협력의 밀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숙영 교육가족과장은 “2년 연속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선정된 것은 지난 한 해 김제시와 컨소시엄 기관 모두가 함께 흘린 땀의 결실”이라며, “‘동고동락’이라는 이름처럼 올해는 도시와 대학, 기업이 더욱 긴밀하게 연대하여 시민 한 분 한 분이 배움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동네점빵’ 본격 운영 시작

생필품·신선식품 등 이동형 판매 서비스

고창군이 지역 농촌마을을 누리며 생필품을 판매하는 ‘고창동네점빵’을 본격 운영한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신림면 농암마을에서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동네점빵’의 첫 현장판매가 이뤄졌다. 한 어르신은 “마을버스를 타면 차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집도 무거웠는데 이렇게 집 앞에서 화장지와 세제 등을 살 수 있어 편하고 좋다”고 웃음지었다. 동네점빵은 생필품과 신선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판매 서비스다. 고창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을 맡고, 요일별로 각 마을을 순회한다. 앞서 지난 3월 30일 ‘고창동네점빵 개소식’과 지역 복지기관 참여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동형 점빵 차량 제작식, 차량열쇠전달, 일일 점빵 매니



지난달 30일 열린 '고창동네점빵개소식' <사진=고창군>

저 위촉식도 함께 이뤄졌다. 고창동네점빵은 향후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상품 구성과 현장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여 갈 예정이다. 또한 자활사업과 연계해 참여자에게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서비스와 복지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고창동네점빵은 단순한 이동판매를 넘어 주민의 일상 가까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시설하우스 폭염예방 시설 지원 접수

생육장애·품질 저하 예방 안정적 영농 기반 마련

부안군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시설원예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재배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시설하우스 폭염예방 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온에 취약한 단동 시설하우스에 에너지 절감형 냉방시설과 온도 저감 자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폭염으로 인한 작물의 생육 장애와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비율은 보조 50%, 자부담 50%이며 단동 하우스 쿨링시스템 설치 기준으로 ha당 3750만원의 단가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시설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주요 지원 품목은 폭염예방 쿨링시스템 패키지로 시설 외부의 열기를 낮추는 외부 미스트와 내부 공기 순환을 위한 동행,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콘트롤박스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폭염기 시설 내부 온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시설작물의 안정적인 생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인 이상기후가 아니라 농업 생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여름철에도 안정적으로 고품질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완주군수 경선 '3인 연대' 유희태 정조준

이돈승·서남용·임상규 정책연대 유군수 통합입장 변화해명 요구 군정 대응·부동산 의혹 등 공세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경선에 출마한 이돈승·서남용·임상규 예비후보가 완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연대'를 공식 선언했다.

3 후보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을 넘어 완주를 살리기 위한 공동의 책임을 선언한다"며 "경선 이후에도 정책 개발과 집행을 위한 공동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완주·전주 통합 문제와 관련해 유희태 예비후보의 입장 변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세 후보는 "재임 기간 내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다가 사직 이후 통합 반대로 선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거와 현재의 입장 변화에 대해 군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군민이 반대하는 통합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군정에 대해 "보여주기식 행정과 성과 없는 정책으로 군민의 기대가 무너졌다"며 "책임 없는 정치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경쟁은 하되 분열하지 않고, 비판은 하되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정책은 이어져야 한다"며 "완주의 미래를 위한 책임 정치의 출발점이 바로 이번 정책연대"라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아울러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완주군정 대응에 대해서도 "군민 불안을 해소하기보다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청사 운영 과정에서 군민 접근 제한 등 폐쇄적 대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 후보는 "특정 지역 토지 매입과 특수관계 법인 거래 구조 등에 대한 의혹으로 군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스스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 군정에 대해 "보여주기식 행정과 성과 없는 정책으로 군민의 기대가 무너졌다"며 "책임 없는 정치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경쟁은 하되 분열하지 않고, 비판은 하되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정책은 이어져야 한다"며 "완주의 미래를 위한 책임 정치의 출발점이 바로 이번 정책연대"라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유군수 "통합은 군민 뜻"...경선 공방 정면 반박

일부 후보 주장 '사실 왜곡' 일축 "소모적 논쟁보다 정책 대결 해야"

유희태 완주군수 예비후보가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6일 유희태 예비후보는 최근 일부 경선 후보가 제기한 '통합 관련 입장 불분명' 발언에 대해 "군수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선동가가 아니라 10만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행정의 수장"이라고 반박했다.

먼저, 유희태 예비후보 측은 상대 후보의 주장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이미 수차례 '군민의 뜻이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통합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천명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유 예비후보 측은 "일부 후보가 '반대'는 단어에만 집착하는 것은 선거용 선전포고에 불과하다"며,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소



지난 3일 유희태 군수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원회 방문 <사진=유희태 예비후보>

모적인 논쟁보다는 완주군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에 임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조사한 전주MBC 여론조사에서도 62%의 완주군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현직 군수가 주민의 뜻을 받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완주가 독자적인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 대안과 군민의 실익과 화합"이라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 측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들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던 것"이라며, "그 결과가 수차례 여론조사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퇴비공장 악취 저감 총력...지원사업 추진

이상고온 고려 예년보다 이른 접수 천연·미생물 악취저감제 지원

남원시는 퇴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비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퇴비공장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유기질 비료 생산 업체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공장 인근 주민들이 겪는 악취 불편을 해소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총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확보

하고, 최근 이상고온으로 인해 악취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는 추세를 고려해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업체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되는 악취저감제는 천연 광물질, 식물성 성분, 미생물 등으로 구성된 살포용 액상 또는 분말 형태다. 이는 유기물을 빠르게 분해하고 악취 발생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 환경과에서도 별도의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사업'을 운영

하며 퇴비공장 등 주요 악취 배출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시는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악취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속적인 악취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양질의 비료 생산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남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공익직불 준수 점검...화학비료 관리 강화

708건 공익직불제 준수 여부 확인 기준 미달 시 직불금 감액 등 조치

순창군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강화를 위해 화학비료 사용 기준 점검에 나선다.

군은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과 관련해 농업인의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환경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 형상 유지, 농약 안전사용, 공익교육 이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 가운데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는 토양과 수질 보호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으로 꼽힌다.

군은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 708건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토양 시료 채취와 정밀 분석을 통해 비료 사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은 농촌진흥청 세부 지침에 따라 토양검정



<사진=순창군>

결과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토양검정은 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등 주요 성분을 분석해 작물 재배에 적합한 토양 상태인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논의 경우 pH 5.5~6.5, 유기물 13~30g/kg 등 일정 기준이 적용되며, 작목과 토양 특성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점검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는 차년도 재검사 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기준에 따라 직불금 감액 등의 조

치가 이뤄질 수 있다.

군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시비 관리 교육과 맞춤형 처방을 병행해 화학비료 사용 절감과 농업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토양검정을 기반으로 한 적정 비료 사용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여행가는 달' 맞춤형 혜택 강화

관광객시 반값·피오리움 할인 코레일 환급 '실질적 무료 여행'

남원시가 4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개인 및 소규모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혜택을 확대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여행가는 달'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되며, 시는 실질적인 방문과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관광객 체감형 혜택'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먼저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관광객시 이용료를 50% 감면하고, 주요 관광지인 피오리움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대상 코레일 자유여행상품 이용객에게는 가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4월부터 5월까지 해당 상품으로 남원을 방문하면 철도 이용료 전액을 쿠폰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사실상 무료로 열차를 이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남원 디지털관광주민증' 신규 가입자에게는 남원 특산품을 증정해 방문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숙박 지원책도 강화한다.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봄편)'와 연계해 야놀자, 여기어때 등 주요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 등록된 관내 숙박업체 70여 곳이 할인 프로모션에 참여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관광객 유입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문화면 철도 이용료 전액을 쿠폰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사실상 무료로 열차를 이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남원 디지털관광주민증' 신규 가입자에게는 남원 특산품을 증정해 방문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숙박 지원책도 강화한다.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봄편)'와 연계해 야놀자, 여기어때 등 주요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 등록된 관내 숙박업체 70여 곳이 할인 프로모션에 참여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관광객 유입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관광객 유입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옥천골 벚꽃축제 '성황' 새 단장 경천변 호평

수변 정비 효과 경관 개선 공연·체형 프로그램 등 '풍성'

순창군의 봄 축제인 '제23회 옥천골 벚꽃축제'가 많은 관광객과 군민들의 방문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4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순창읍 경천변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만개한 벚꽃과 다양한 공연·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며 행사 기간 내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정비된 경관이 더해 한층 향상된 볼거리를 제공했다. 축제장 주변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한층 향상된 볼거리를 제공했다.

축제장 주변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한층 향상된 볼거리를 제공했다. 축제장 주변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한층 향상된 볼거리를 제공했다.

축제장 주변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한층 향상된 볼거리를 제공했다. 축제장 주변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한층 향상된 볼거리를 제공했다.

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아울러, 축제 기간 동안 개회식과 불꽃놀이 등을 비롯해 군민노래자랑, 읍·면 댄스페스티벌, 지역가수 공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공연 등 다양한 무대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또한 맨손 장어잡기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며 축제 열기를 더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천과 양지천 일대를 순창을 대표하는 명품 수변 관광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경천변 일원에서는 순창의 대표 볼거리인 '순창 참두름여행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광주서 춘향제 현장 홍보 '봄업'

롯데아울렛서 체험형 이벤트 협찬·간여물품 활용 예산 절감

남원시가 제96회 춘향제 개막을 앞두고 5일 오후, 광주 롯데아울렛 월드컵점에서 대대적인 현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며 축제 봄업(Boom-up)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휴일 오후 쇼핑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춘향제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특히 축제 마스코트인 '향이·몽이' 인형탈과 함께하는 포토존과 MC 김범준이 진행한 '추억의 뿔기', '뿔기 이벤트'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줄을 서는 등 호응을 얻었다.

시는 춘향제 공식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팔로워 이벤트와 연계해 예교백, 소원등 만들기 DIY 키트, 담요 등 실용적인 기념품을 제공하며 축제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날 행사의 영향으로 춘향제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기존 1.2만 명에서 1.3만 명을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사진=남원시>

제 사진 홍보영상과 '사랑춤' 챌린지 영상을 상영하며 현장의 시각적 주목도를 높였다.

이번 행사는 예산 절감과 상생 협력 측면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시는 타 부서의 잔여 홍보물품을 활용하고 지역 기업 '원푸드'로부터 협찬받은 과자를 이벤트 물품으로 활용해 효율적인 자원 운용과 지역 경제 홍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이다.

이날 행사의 영향으로 춘향제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기존 1.2만 명에서 1.3만 명을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360여명 대상 1인 48만원 상당

완주군이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키고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관내 임산부 3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완주군에 주소를 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다. 다만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영양플러스)이나 농식품 바우처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이미 지원을 받은 산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산부는 오는 17일까지 전북 예교 푸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총 48만 원(자부담 9만 6,000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유기축산물 등을 지정된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친환경 농산물을 50%이상 주문해야 하며, 모든 물품은 신선하게 거주지가 배송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임산부와 산모의 건강을 지키고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관내 임산부 3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나섰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올해 '청년 도전 지원' 첫 기수 33명 발굴

완주군이 지역 청년들의 사회 진입과 자립을 돕는 '2026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의 첫 번째 기수로 33명을 발굴하며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첫 기수 모집은 올해 전체 목표 인원인 104명 대비 약 31%의 달성률을 기록하며 사업 초기 안정적인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자기 분석과 진로 탐색,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등 단계별 취업 역량 강화 과정을 지원받는다.

참여자에게는 활동 이후 결과에 따라 최대 250만 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하며, 과정을 마친 후 취업에 성공할 경우 추가 장려금도 제공한다.

군은 현재 4월 개강하는 과정을 위해 추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18~39세(완주군민은 45세까지 가능) 청년 중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참여 이력이 없는 이들을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기업사·옥천코크리트 옥천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순창기업사(대표 봉성배)와 옥천코크리트(대표 서명욱)가 (재)순창군옥천장학회에 지역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순창기업사는 건설·자재 분야에서 오랜 신뢰를 쌓아온 향토기업으로, 아버지 봉성배 씨와 봉용일·봉제일 두 형제가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다. 옥천코크리트 또한 서명욱 대표를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기업으로, 두 기업 모두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이번 기탁에서 옥천코크리트는 500만 원, 순창기업사는 300만 원을 전달했으며, 두 기업 모두 매년 꾸준한 장학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옥천코크리트는 2019년부터 7회에 걸쳐 총 3,200만 원을, 순창기업사는 2016년부터 10회에 걸쳐 총 3,8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공헌과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서명욱 대표는 "지역 학생들이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봉성배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전주)산림조합 경천면 가천초서 '학교숲 가꾸기'

완주군(전주)산림조합(조합장 임필환)과 숲사랑봉사단(단장 박영철)은 최근 완주 경천면 가천초등학교에서 봉사단과 전교생이 함께 참여한 학교 숲 가꾸기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학교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화인 금강화를 포함하여 꽃잔디, 블루베리 등을 심고 학년별 학생들 이름이 적힌 표찰을 달아줘 내 나무라는 애정을 갖도록 해 아이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식재 행사 후 봉사단과 함께하는 즐거운 전래놀이 한마당이 펼쳐져 웃음과 활기가 넘치는 하루가 되었다.

숲사랑봉사단(단장 박영철)은 "학생들과 함께 자연을 직접 가꾸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교숲 가꾸기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휴식과 배움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완주군산림조합과 숲사랑봉사단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환경교육 및 봉사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이날 교화인 금강화를 포함하여 꽃잔디, 블루베리 등을 심고 학년별 학생들 이름이 적힌 표찰을 달아줘 내 나무라는 애정을 갖도록 해 아이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식재 행사 후 봉사단과 함께하는 즐거운 전래놀이 한마당이 펼쳐져 웃음과 활기가 넘치는 하루가 되었다.

숲사랑봉사단(단장 박영철)은 "학생들과 함께 자연을 직접 가꾸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교숲 가꾸기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휴식과 배움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완주군산림조합과 숲사랑봉사단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환경교육 및 봉사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무주 설천면 뒷작금 벚꽃축제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

‘제7회 무주군 설천면 뒷작금 벚꽃축제’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설천면 뒷작금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설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웅)가 주관하며 부침개와 잔치국수 등 다양한 향토 먹거리를 맛보며 벚꽃길을 걷는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인근에는 반디랜드와 태권도원, 구천동 33경을 비롯한 무주덕유산리조트 등이 자리잡고 있어 연계 관광도 가능하다. 무주구천동 33경 중 제1경인 라제동문에서 제2경은 구암까지 2.2km 구간은 구천동 벚꽃 명소로 주변 절경과 어우러진 꽃길에 특별한 아름다움을 더한다.

설천면 주민들은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며 벚꽃 명소 무주에서 새하얀 꽃비를 맞아 보시길 바란다”라며 “자연특산물 무주에서만 누릴 수 있는 벚꽃 추억과 향토 음식을 통해 봄날이 더욱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재경 번암면 향우회, 2026년 정기총회 성료

장수군 재경 번암면 향우회는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배뉴비안에서 향우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재경 번암면 향우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향우 간 화합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장정석 회장을 비롯해 장일·장상진 부회장 등 향우회원과 하상환 재경 장수군민회 회장 등이 참석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향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번암면에서는 이종현 번암면장, 이종섭 군의원, 소순배 발전위원장, 이항숙 주민자치위원장, 배종화 이장협의회장 등 기관·사회단체장과 마을 이장들이 참석해 고향과 향우 간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개회식과 내빈 소개, 인사말 및 축사,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고향에 대한 정을 나누고 상호 간 유대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 체육 발전과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이성철 장수군체육회장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수도권을 있는 교유의 장으로서 향우회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지역과 향우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주말에도 편리하게 농기계 임대하세요

진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농번기 기간 동안 주말과 공휴일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1일부터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대응해 휴일에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작업 일정 부담을 줄이고 영농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휴일 운영은 진안읍에 위치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진안군 진안읍 진로7 702-30)에서 실시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특히 이번 휴일 운영은 농업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바쁜 농번기 일정 속에서도 보다 유연한 영농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휴일 운영은 오는 12월 20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농번기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한우 개량정책 ‘11년째’

2015년부터 전액 군비 지원 유전 형질 상향 평준화 농가 고수익 전인

임실군이 한우 산업의 근간인 가축 개량 정책을 11년째 지속 추진하며 농가소득 증대와 축산물 품질 고급화라는 성과를 동시에 이끌어 내고 있다.

군은 지난 2015년 도입한 ‘한우 1군 우량정책 지원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억원의 예산을 전액 군비로 지원하며, 농가 부담 없이 우수 유전자를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는 농가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개량효과를 극대화하는 임실군만의 차별화된 축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축 개량은 유전적 특성을 개선해 우수한 형질을 축적하는 장기사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최소 수 세대(10년 이상)가 소요되는 분야다.

특히, 한우는 임신과 성장기간이 길어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지속적인 투자와 일관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당장의 수익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이 필수적이다.

임실군은 이러한 가축 개량의 특성을 고려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고품질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0년 넘게 우수 씨수소 유전자를 공급하는 ‘우량정책 지원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

유전능력이 검증된 최상위 ‘1군 정책’은 확보가 어렵고 가격 부담이 크지만, 군은 농가 부담을 0%로 낮춰 누구나 우수한 혈통의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는 관내 한우의 유전적 형질을 상향 평준화시켰으며, 우량정책을 통해 태어난 개체들은 일반수 대비 빠른 발육 속도와 높은 사료 효율을 보여 사육 기간 단축 등 경제적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사업의 결실은 축산물 등급 판정 현장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유전적 형질 개선을 통해 한우의 증체량이 늘고 1++ 등급 출현율이 지속적으로



임실군이 한우 산업의 근간인 가축 개량 정책을 11년째 지속 추진하며 농가소득 증대와 축산물 품질 고급화라는 성과를 동시에 이끌어 내고 있다 <사진=임실군>

높아짐에 따라, 임실 한우는 시장에서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높은 경락가 형성으로 이어지며 농가 실질 소득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대규모 통합 브랜드가 없더라도 개별 농가가 생산한 한우 한 마리 한 마리가 시장에서 ‘명품’으로 인정받으며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실리 중심의 개량 행정’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비 부담과 소 값 하락으로 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임실군의 ‘전액 군비 지원’은 농가의 생산비를 직접적으로 절감해 주는 효과 정책으로 꼽힌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선언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앞장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 의지

장수군은 6일 군청 회의실에서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선언 및 다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선언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적극행정과 조직혁신의 출발점이 되

는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 의지를 함께 다졌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제공하는 관행으로, 공직사회 내 대표적인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지적돼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선언서 낭독이 진행됐으며, 이어 간부공무원들이 해당 관행 근절에 솔선수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자필 서명했다.

참석자들은 선언과 서약을 통해 불필요한 의전과 관행을 없애고,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구입비 지원

차량구입비 10% 최대 500만원

임실군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가족 동반 이동 여건 개선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생산 6~11인승 차량을 구입하는 다자녀 가구에 차량 구입비의 10%(최대 5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임실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2007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부터)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으로 당해연도 내 구매계약 및 출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또 국내 공장에서 생산·제작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여야 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추진

온라인 강의·학원비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무주군이 지역 내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 으뜸인재육성사업’ 추진계획을 밝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2026년 무주군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지역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무주군에 주소를 둔 동일 나이 학급 학생에게 ‘온라인 강의 수강료(92명)’ 또는 ‘학원비(92명)’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금액은 1인

당 최대 50만 원 이내이며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분야는 교과·비교과·어학·IT·진로·직업 등 다양하다.

신청자 접수는 일반의 경우, 오는 13일부터 15일(09:00~23:30)까지 온라인(네이버폼 설문 링크: <https://naver.me/Ix0vWARp>)상에서 선착순(50여명) 진행되며, 사회적 배려 대상 가정 등의 학생은 학교장 등 기관을 통해 우선 추천(40여명)을 받는다.

최종 대상자는 22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된 학생은 기간 내에 참여 신청서 등을 무주군평생교육원

누리집(<https://www.muju.go.kr/lifelongedu/main/main.do>)에 등록하면 된다.

김성욱 무주군교육발전정책담당관은 “2024년과 2025년에 온라인 수강권만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학생 맞춤형 교육비까지 확대했다”라며 “모두가 기대하는 대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은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홍보부터 대상자 선정, 지원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레드푸드·스마트농업 연계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장수군은 레드푸드 및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오는 10일까지 진행하고, 이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 관계자 20개소가 참석해 사업 내용과 지원 절차,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군은 현장 중심 설명을 통해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내 유망기업

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장수군이 주관하고 전북테크노파크와 캠퍼스융합기술원이 수행하는 이번 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약 4억9000만원이며, 기업당 연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되어 올해 2년 차를 맞았으며, 지역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군은 2025년 17개 기업이 참여해 △창업기업 경영·기술 컨설팅 △농가혁신 애로기술 컨설팅 △제품 고급화 △마케팅 △시험분석·인증 △지식재산권

획득 △농가혁신 기술애로 지원 등 총 31개 과제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참여기업의 총매출액은 전년 대비 11억원 증가했으며, 신규 고용 15명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선 농산유통과장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이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군민이 안심·신뢰하는 안전 확보 총력

집중안전점검 사전 설명회 개최

무주군이 ‘군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 확보에 나선다.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1일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으로, 6일에는 이와 관련한 사전 설명회가 개최됐다.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노창환 무주군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장(무주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안전재단과 등 15개 부서 시설 담당자 35명이 참석해 추진 일정과 체계, 점검 대상과 기준, 점검 방법 등을 공유했다.

노창환 무주군 집중안전점검 추진단

장은 “무주군은 선제적 위험 요소 발굴과 사고 예방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집중안전점검을 진행해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달성했던 도내 집중안전점검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지켜낼 것”이라며 “주택은 물론, 숙박 시설, 축사 등 중점 점검 대상의 노후도와 안전등급, 사고 위험성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무주군의 집중안전점검 대상은 총 32개 시설유형 92곳으로, 무주군청 공무원, 무주소방서 등 기관 관계자, 시설·토목·전기·가스·소방·건설안전·산업안전·화학물질 분야의 민간 전문가

로 구성된 38개 점검반 58명이 합동점검에 나선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시설별 유형에 최적화된 드론과 열화상카메라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육안 확인이 어려운 구조물 및 전기 시설물의 발열 상황까지도 세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주민점검신청제’를 강화한다. 현재까지 접수된 곳은 4곳으로, 점검 기간 전까지 신청 채널을 상시 운영해 군민의 불안 요소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봄철맞이 펫티켓 캠페인 실시

임실군은 지난 3일 오전 봄철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임실을 천변 산책로에서 배변봉투를 증정하는 ‘펫티켓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따뜻한 봄 날씨로 산책과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외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은 쾌적한 산책 환경 조성과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캠페인은 반려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펫티켓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주요 내용은 △외출 시 2m 이내 목줄 및 인식표 착용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 이행 △외출 시 배변봉투 지참 및 배설물 수거 △매견 사육 시 군청 허가, 법정교육 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 등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제36회 장계면민의 날 운영위원회 위촉

성공적인 행사추진 기반 마련

장수군 장계면은 지난 3일 제36회 장계면민의 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운영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장수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됐으며, 지역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장계면민을 대표하는 공익성이 인정된 지역사회단체장 등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행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추진을 위해 구성된 만큼,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

위촉된 위원들은 오는 6월 10일로 예정된 장계면민의 날 행사 종료 시까지 행사 주관단체 선정, 면민의 장수해 운영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장수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됐으며, 지역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장계면민을 대표하는 공익성이 인정된 지역사회단체장 등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행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추진을 위해 구성된 만큼,

/장수=최진수 기자



남원 사매면 용복중 학생들, 부활절 맞아 직접 꾸민 계란 전달

남원시 사매면 용복중학교 학생들이 부활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부활절이 지닌 '새로운 시작'과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생명을 상징하는 계란을 직접 꾸미는 활동에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계란에는 다양한 색과 그림,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으며,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행복하세요' 등의 문구를 적어 받는 이들에게 작은 기쁨을 전하고자 했다.

이렇게 준비된 계란은 사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민원인들과 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계란을 건네며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정하복 기자



군산 미성동 '하이도시락', 착한가게 동참

군산시 미성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일 산북동에 위치한 하이도시락을 찾아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에 착한가게에 동참한 '하이도시락'은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도시락과 반찬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 이번 나눔 실천을 계기로 단순한 먹거리 제공을 넘어 따뜻한 마음까지 전하는 미성동의 모범적인 가게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이도시락 최수경 대표는 "정성을 담아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처럼, 미성동에도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었다"며 "조금이나마 이웃들에게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전했다.

김용배 민간위원장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 주신 기부금은 소외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좋은 곳에 사용하겠다"며, "더 많은 가게들이 기부에 동참하여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미성동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한솔홈데코팀,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최우수'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전북 대표로 참가

익산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지난 3일 전북특별자치도119안전체 협관에서 열린 '제15회 전북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익산 대표로 참가한 '한솔홈데코'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뮬레이션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도내 학생·청소년부 4개 팀과 대학·일반부 4개 팀 등 총 8개 팀 54명이 참가해

119신고부터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까지 응급처치의 과정을 연극형 퍼포먼스로 재현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익산 대표로 출전한 '한솔홈데코' 팀은 '평범한 회사, 예상치 못한 순간'이라는 주제로 무대를 구성했다. 회사 도중 동료가 갑자기 쓰러지는 상황을 실감 나게 연출하며, 초기 대처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연극 형식으로 전달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거머쥔 한솔홈데코 팀은 오는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



익산 대표로 출전한 '한솔홈데코' 팀은 '평범한 회사, 예상치 못한 순간'이라는 주제로 무대를 구성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영원면 새마을부녀회, 소외계층에 '사랑의 밑반찬' 나눔

정읍시 영원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박귀엽)가 정성이 가득 담긴 밑반찬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지난 3일 오전 영원면 새마을부녀회들은 이른 아침부터 한자리에 모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정성을 담아 직접 밑반찬을 조리했다. 메뉴는 홀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김치, 절임 고추, 돼지불고기 등 영양가 높고 든든한 밑반찬들로 구성됐다. 완성된 반찬은 관내 소외계층 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귀엽 새마을부녀회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제 일처럼 밥 짓고 나눠준 22명의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의 정성이 듬뿍 담긴 반찬이 우리 이웃들에게 즐거움과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남원 금동, 저장강박 어르신 쾌적한 보금자리 선물

금동행정복지센터 추진, 민간협력 빛난 현장

저장강박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웃터미와 집동사니로 가득했던 어르신 가구가 민간협력력을 통해 쾌적한 보금자리로 거듭났다.

이번 활동은 남원시 금동행정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발굴된 사례로 지난 2일 진행된 환경 개선 현장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LH 관계자,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유관기관과 민간봉사단체 20여 명이 대거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오랜 기간 방치된 대량의 옷가지와 생활용품을 일일이 분류하고 포대에 담아 외부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봉사자들은 어르신이 안전한 보금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정리된 집 안을 확인한 어르신은 환한 미소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김제시 인풍동 행정복지센터는 6일 부활절을 맞아 김제 영광교회 로부터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계란 130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김제 영광교회, 부활절 맞아 계란 130판 기탁

김제시 인풍동 행정복지센터는 6일 부활절을 맞아 김제 영광교회 로부터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계란 130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김제 영광교회는 매년 계란과 라면을 꾸준히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 내 귀감이 되고 있다.

하재삼 목사는 "부활절을 맞아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정완 동장은 "영광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계란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정성껏 전달해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완주군 청소년, 화재 대응력 키우는 '소방교육'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가 최근 청소년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연계 활동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이번 활동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청소년들이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초기 대응 능력을 기르고자 기획했다.

교육은 완주소방서 소속 설수경 소방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김민재 학생은 "수련관 곳곳에 설치된 소화기와 완강기를 보지만 했을 뿐 구체적인 사용법은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자세히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완주=김명근 기자



익산 오산면 주민자치위원회,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

익산시 오산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봄을 맞아 맥문동 식재 행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오산면 행정복지센터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오산면 주민자치위원 20여 명이 참여해 화단정비와 잡초제거를 실시하고, 맥문동 2,000본을 심었다.

맥문동은 관리가 용이하고 사계절 푸른 경관을 유지할 수 있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삼여 위원장은 "작은 실천이지만 위원들과 힘을 모아 마을 환경 가꾸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란 오산면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오산면이 더욱 따뜻하고 하나된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실천

01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02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하기!

03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미세먼지 제거하기

04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일반인은 75이하에서 가벼운 운동은 권장해요!

36 μg/m³

75 μg/m³

〈一事一言〉



상식이 식상해지는 시기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우리는 한때 상식을 배우며 자랐다. 유치원에서 시작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윤리와 도덕, 공동체 의식은 교육의 기본 축이었다.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의 이익을 우선하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의심할 여지 없는 '옳음'이었다. 사해동포주의와 같은 개념 또한 비록 추상적일지라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를 돌아보면, 그러한 상식은 점점 힘을 잃고 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식상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이, 책임보다 효용이, 과정의 정당성보다 결과의 유용성이 더 큰 가치를 갖는 듯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라기보다, 왜곡된 방향으로 이끌린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지도자의 판단 하나,

권력의 선택 하나가 사회 전체의 가치 기준을 뒤흔들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개인의 삶 속으로 스며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는다. '옳다'고 배운 것과 '현실적으로 맞다'고 여겨지는 것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그 틈에서 개인은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는다. 봉사와 희생은 여전히 미덕으로 언급되지만, 실제 삶에서는 계산과 효용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조차 손익을 따지는 기준 속에서 재단되는 현실은, 우리가 배워온 가치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모든 가치를 새로 정의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오래된 기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외부의 기준

이 혼란스러울수록 개인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상식이 식상해지는 시대일수록, 그 상식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공동체를 위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을 희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나 역시 그 공동체의 일부라는 자각에서 출발한다. 자연을 보호하라는 가르침 또한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다. 우리가 배워온 가치들은 결코 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절실히 필요한 기준일지도 모른다.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삶의 기준을 스스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누군가가 정해준 방향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가치 위에 삶을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책임 있는 태도일 것이다. 상식이 식상해졌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되물어야 한다. 그것이 정말 남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혼란의 시대를 건디는 가장 인간다운 방식일 것이다.

사설

미국이 저지른 중동의 불길, 전북 경제까지 덮쳤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그 파장이 전북 도민의 일상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명분 없는 전쟁이 국제유가를 밀어 올리고 그 여파는 곧바로 산업 현장과 서민 경제를 압박하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멀리 떨어진 분쟁이 도민의 삶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전쟁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군산 지역의 상황은 그 축소판이다. 원유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정으로 아스콘 공장 8곳 중 다수가 가동을 멈췄고 현장에서는 차제 확보 자체가 어려워졌다. 아스팔트 가격은 한 달 새 30% 이상 급등하며 공사비 부담을 키웠고, 결국 도로 포장공사 9건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공사 중단은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 전반의 생존 문제로 직결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레미콘 업체 역시 혼재해 가격 인상과 공급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대기업 중심의 독점 공급 구조 속에서 가격 인상은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되고 재고는 고작 두 달치에 불과하다. 당장은 가동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급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공사 현장엔 연쇄적으로 멈춰 설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제 분쟁이 지역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물류비와 생산비를 끌어올리고 이는 곧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 전북의 산업 구조상 건설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는 지역경제의 체력을 시험하는 중대

한 위기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중동 전쟁에서 보여준 미국의 행보는 설득력을 찾기 어렵다. 갈등의 고리는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은 불투명하다. 오히려 군사적 긴장은 국제 에너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세계 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힘겨루기의 대가는 무고한 국가가 떠안는 구조다. 국제사회 역시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 외교적 해법을 통한 긴장 완화와 에너지 시장 안정화가 시급하다. 특히 미국과 이란은 힘겨루기를 넘어 분쟁의 확산을 막는 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결이 아니라 대화이며, 군사적 압박이 아니라 외교적 해법이다. 정부와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수급 안정과 가격 급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구조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 이번 사태는 외부 변수에 취약한 산업 구조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의 조기 종식이다. 명분 없는 충돌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미국과 이란은 더 이상의 긴장 고조가 가져올 파국적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공조와 안정,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지금 즉시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세계 경제를 지키고 전북도민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의시

익는 술 / 이성부

착한 몸 하나로 너의
더운 허파에
가 달을 수가 있었으면.
쓸데없는 욕심 걷어 차버리고
더러운 마음도 발기발기 씻어놓고
너의 넉넉한 잠 속에 뛰어들어
내 죽을 파묻힐 수 있었으면.
죽어서 익는 깨달음

남을 더욱 앞장서게 만드는 깨달음
익어 가는 힘,
고요한 힘.
그냥 살거나 피 흘리거나
너의 곁에서
오래오래 씹을 수만 있다면.

시인 약력 : 1942년 광주 출생. 경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일보 기자와 '뿌리깊은 나무' 편집주간으로 일했다.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시 '바람'과 1961년 현대문학에 시 '소모의 밤' '백주'로 2회 추천받았으며, 1962년 '열차'가 추천돼 등단했다. 1967년 시 '우리들의 양식'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1969년 첫 시집 '이성부 시집'으로 제15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화강암' '숨은 벽'과 연작시 '바위타기' 등의 시집을 발간했다. 대산문학상(2001)과 제1회 가천환경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문화재 열전

홍덕당간지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당간
-지정일 - 1973년 6월 23일
-시대 - 고려시대
-소재지 - 고창군 홍덕면 교운리 126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윤리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원지국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말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수지국 010-8828-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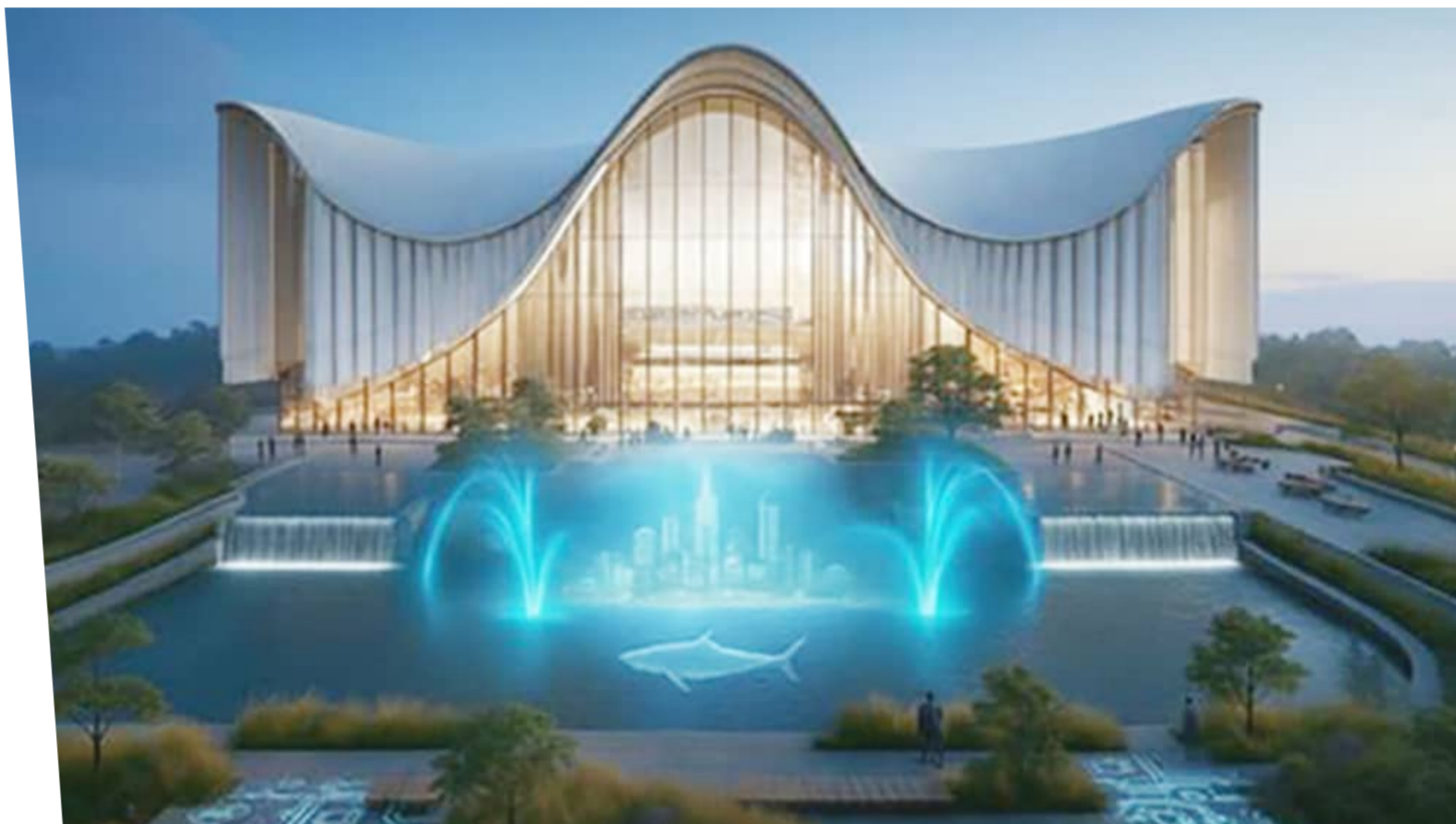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김제의 미래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 ‘착착’

민선 8기 대규모 국책사업 연이어 예비타당성조사 관문 통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국민과 힘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곤 한다. 수천억 원 규모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지역 산업 구조를 바꾸고 일자리와 인구, 관광 수요까지 끌어들이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사업의 출발점이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 재정사업의 첫 관문이다.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거나 이를 통과한 사업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민선 8기 김제시는 총사업비 2,976억원 규모의 국도 21호선 확장 사업이 지난해 1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1,738억원이 투입되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지난 10일 총사업비 1,354억원 규모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사업이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김제시는 농생명 산업과 해양·생태 관광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 거점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편집자 주)

해 부지 매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공항부지 활용계획 및 종자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설명하며 발로 뛰는 행정력을 선보이고 있다.

생산유발 2,435억원, 부가가치유발 1,007억원, 취업유발 636명 등 지역경제에 큰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종자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해 김제시는 K-종자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종자산업 중심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전망이다.

새만금 해양시대를 이끌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국립해양도시과학관은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김제시 진봉면 (구)심포항 일원에 국비 1,354억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첨단모빌리티 등 새만금의 신산업과 RE100 산업 전환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문화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특히,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으로 생산유발액 1,364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684억원, 고용창출 496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미래 첨단 산업과 해양관광산업으로 도약을 선도하고 있는 김제시의 대표적인 정책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시는 국립해양도시과학관과 연계해 내년에 개장을 앞둔 국립 새만금수목원과 광활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새만금 방조제 등 새만금 내측 관광 인프라와 심포 마리아, 망해사 등 기존 관광지를 연결하여 과학과 교육, 관광이 융합된 체류형 해양도시 브랜드 거점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백년대계(百年大計) 김제,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이어 본예타 통과까지 총력전

김제시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연이어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며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등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목표로 하는 현안 사업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이미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국도 21호선 확장 및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등 김제의 미래를 이끌 핵심 사업 역시 본예타까지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러한 성과는 중앙부처 및 전북특별자치도, 국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정책적 공감대를 넓혀 온 노력의 결과”라며 “사업 논리를 만들고 자료를 보완하며 묵묵히 준비해 온 공직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한 국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김제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성장 기반을 차곡차곡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 “국도 21호선 확장”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김제시는 지난해 1월 국도 21호선 확장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며 지역 교통 인프라 개선과 함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일괄 예타는 국가 간선 도로망 확충이 필요한 사업을 묶어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이번 예타 대상에 포함된 사업은 백구에서 공덕까지 5.9km 구간의 국도 21호선 6차로 확장 사업비 1,173억원과 공덕에서 군산 대야까지 10.0km 구간의 6차로 확장 사업비 1,803억원으로, 전체 연장은 15.9km에 총사업비는 2,976억원 규모이다.

국도와 지방도는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로 김제시는 탄탄한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일괄 예타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도 21호선 확장 사업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총사업비 1,738억원 규모, 농업의반도체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738억원(국비 1,683억원, 지방비55억원)으로 민간육종연구단지과 연계하여 오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구)김제공항부지와 새만금 종자생명단지 273ha에 종자 기술 혁신부터 생산·가공·유통·수출에 이르는 종자산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11월에는 용도 폐지된 (구)김제공항부지 관리청인 서울지방항공청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